

관광객 코로나19 확진 끊임없다

가족여행 관광객·해외 입국자 각각 확진
22일부터 서귀포시 75세 이상 화이자 접종

가족 여행을 목적으로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9~20일 각각 1명(제주676번·677번)씩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로써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677명으로 늘었으며, 이달 들어 도내에선 관광객 중 19명이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676번 확진자는 지난 16일 가족 1

명과 함께 경기도 고양시에서 여행을 왔다. 676번은 여행 중이던 지난 17일 경기도 일산동구보건소로부터 업무상 접촉이 이뤄졌던 지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과 함께 접촉자 통보를 받았다.

676번은 이후 도내 한 시설로 격리됐으며 최초 검사에서는 미결정(재검) 판정을 받았다. 이후 지난 19일 재검사 결과 최종 확진됐다.

함께 제주를 찾았던 가족 1명은 지난 18일 오전 경기도로 돌아갔으

며, 음성 판정을 받고 현재 자가격리 중이다.

677번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카자흐스탄을 다녀온 이력이 있는 도민이다. 함께 입도한 일행 1명은 현재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를 진행하는 중이다.

서귀포지역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도에 따르면 20일 완도항을 통해 화이자 백신 3510회분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200회분이 오후 5시40분쯤 제주항에 도착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200회분은 도내 보건의료인(3073명), 경찰·소

방 등 사회필수인력(3487명), 투석 환자(1156명) 등에 대한 일부 물량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19일부터 전화, 예방접종누리집(<https://ncvr.kdca.go.kr>)을 통해 사전 예약을 진행하며, 오는 26일부터 위탁의료기관 52개소에서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다.

또 도착한 화이자 백신은 서귀포시 지역 예방접종센터(서귀포의료원)로 배송된다. 화이자 백신은 22일부터 직제순인 송상동, 정방동, 중앙동 순으로 서귀포 지역 75세 이상 어르신 및 노인시설 입소·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될 계획이다.

강다혜기자

도, 자가격리 무단 이탈 40명 고발
적발 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무관용 원칙 처벌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는 등으로 자가격리 중인 시민들의 이탈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무단이탈의 사유로 고발조치된 자가격리자는 총 40명이다. 이유는 “랜터키를

반납하기 위해”, “택배 수령”, “답답해서 운동하러” 등 다양했다.

최근엔 자가격리 중이던 50대가 안심밴드 부착 규정을 무시하는 등 2차례나 무단이탈을 감행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도는 자가격리자들의 무단이탈을 방지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일대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도·행정시·자치경찰단 합동으로 불시 점검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담공무원의 일대일 밀착 모니터링은 안전보호 앱을 통해 GPS 기반의 점검 외에도 하루 2번의 유선 통화를 통해 건강 체크, 방역수칙 안내 등이 이뤄지고 있다.

도는 양 행정시, 경찰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안전보호 앱 미설치자 ▷앱 오류 발생자 ▷임대폰 사용자 ▷모니터링 과정에 이탈 의심자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불시에 자가격리 장소를 방문해 수칙 준수와 무단이탈 여부에 대해 중점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격리시설을 이탈하는 즉시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판단,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조치한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기준 도내 자가격리자 수는 총 505명이다. 확진자의 접촉자가 251명, 해외 방문 이력자가 254명이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어제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열려

송운호 씨 ‘장한 장애인 대상’

로건 아래 열렸다.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20일 오전 11시 제주시 조천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사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총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기념식은 ‘같은 길을 걷다. 같이 길을 찾다’라는 슬

로건 아래 열렸다. 기념식에선 송운호씨가 ‘장한 장애인 대상’을 받았으며 정경자씨와 참조은적십자봉사회(단체)가 장애인도우미 대상을 받았다. 김형주씨 등 총 2명엔 장애인복지특별상도 수여됐다. 이와 함께 총 21명에 대한 원희룡도지사 표창도 전달됐다. 강다혜기자

제주대 제주향토문화 상표·디자인 경진대회

제주 향토문화를 상표·디자인으로 권리화하기 위한 제주 향토문화 활용상표·디자인 경진대회가 진행됐다. 제주대학교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사업단과 제주자치도,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식재산센터,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가 공동 주최한다. 도내 초·중·고등학생과 대학

(원)생, 일반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작품 접수는 오는 5월 21일까지 온라인 접수 페이지(<https://forms.gle/4YToUSpnmxBkNqa18>)를 통해 하면 된다. 수상작은 6월 상표·디자인 출원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 번리사 등의 전문가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오은지기자



백로들의 먹이 쟁탈전 20일 도내 최대 철새도래지인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에서 노랑부리백로(천연기념물 제361호, 멸종위기종 1급)를 비롯한 대백로, 중대백로, 쇠뿔로들이 먹이를 차지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강희만기자

기초학력 지원 등 33개 사업 ‘정책실명제’
제주도교육청, 신규 27·계속 6개 등 대상 사업 선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올해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33건을 선정, 공개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9일 열린 정책실명제 선의위원회에서 ‘기초학력 지원’ 등 신규사업 27건과 계속 공개 사업 6건이 올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선정된 대상사업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제주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입됐다.

올해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기초학력 지원 ▷원격교육 인프라 및 플랫폼 등 구축 ▷위기학생 지원 확대 ▷안전한 등하교길 조성 등 27개 사업이다. 2018년부터 계속 공개중인 사업은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 ▷석면함유 시설물 개선사업 등 6개 사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공개로 수요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특수교육 지원 인력 확대를”
제주 교육공무직본부 어제 성명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가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논평을 내고 특수교육 지도·지원 인력 확대·강화를 위한 교육당국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를 촉구했다.

제주지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2000년대 초부터 특수교육지도사들이 장애학생들이 안전한 학습권을 누릴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일해왔지만 현장에선 이러한 노력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음을 토로했다.

제주지부는 특히 “특수교육 지도·지원인력의 전문성 강화는 특수교육 발전에 필수적”이라면서 “장애학생들의 교육권 강화에 기여하겠다는 노동자들의 방학기간 중 직무 연수 요구는 몇 해간 반복되어 왔지만 예산 등을 핑계로 교육당국이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지부는 법·제도 및 학교문화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보다 더 나은 특수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인력 확충을 촉구했다.

오은지기자

21~27일 용연 구름다리 출입통제
바닥판 보수·케이블 녹 제거 작업

연중 도내의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제주시 용연동의 용연구름다리가 보수공사로 인해 21일부터 일주일간 출입통제된다.

제주시는 21일부터 한천 하류에 있는 용연구름다리의 보수공사를 7일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원활한 보수공사를 위해 공사기간 중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광객 등의 출입이 통제된다.

용연구름다리는 2005년 야간관광 활성화 및 마을간 연결을 위해 보행자 전용 다리로 설치됐다. 연장 52m, 폭 2.6m의 케이블을 이용한 구조로 통행자가 다리의 흔들림을 느낄 수 있게 설계되어 매일 수백명이 방문하는 관광명소다.

용연구름다리는 이러한 구조적 특성으로 3종 시설물로 지정되어 매년 2회 이상의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정비공사를 통해 바닥판을 보수하고 케이블 녹 제거 및 하부정비 작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윤형기자 yhle@ihalla.com

한라일보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제주의 보배로운 선물
몬트랙
종합축산물 제조·유통 전문기업

프리미엄 제주포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몬트랙”은 통신통신포크로 귀여운 모양을 뜻하는 제주어로 국내 최초 환경친화축산농장 「제주동부축산」의 프리미엄 돈육 브랜드입니다.



대표이사 양 류 진

농업회사법인 몬트랙(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1672(조천읍 선흘리 1856-5)
Tel_ 064.782.0328 Web_ www.montrak.co.kr



주문 및 배송문의 064.782.3066 / 010.5348.3066

